

1분기 무역기술장벽(TBT) 1,194건 2년 연속 최고치

- 미국, 중국 상위권…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 중요

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(WTO)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*는 1,194건을 기록했다. 이는 전년 1분기에 이어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.

* 세계무역기구(WTO) 무역기술장벽(TBT)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, 표준,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·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

올해 1분기 통보된 1,194건의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,

우간다, 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으며, 전년도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.

우리나라 수출의 80%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, 전년 동기(243건) 대비 약간(8.2%) 증가하였다. 이는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 강제인증(CCC)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(6건→64건)한 데에서 기인하였다.

* 10대 수출국: 중국, 미국, 유럽연합(EU), 베트남, 일본, 대만, 싱가포르, 멕시코, 말레이시아, 호주
5대 신흥국: 인도, 사우디아라비아, 러시아, 아랍에미리트, 칠레

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(24.8%), 화학세라믹 분야(16.5%), 농수산물 분야(13%)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고, 전기전자 분야(11.9%)가 그 뒤를 이었다.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기술규제가 점차 전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.

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“올해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”며, “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, 중국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전민영 (043-870-5520)
		담당자	주무관	남궁연 (043-870-5521)



붙임	2024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【 표1 연간 무역기술장벽 통보 추이 (단위: 건) 】

연도	2024년	2023년	2022년	2021년	2020년
1분기	1,194	1,121	915	1,030	961

【 표2 무역기술장벽 통보 상위 10개국 (단위: 건) 】

국가	우간다	이집트	미국	탄자니아	케냐	르완다	부룬디	중국	이스라엘	브라질
1분기	151	133	102	90	84	83	71	64	56	51

【 표3 15대 중점국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 (단위: 건) 】

10대 수출국	미국	중국	베트남	유럽연합 (EU)	일본	대만	호주	멕시코	싱가포르	말레이시아
1분기	102	64	22	14	13	6	4	2	1	0
5대 신흥국	사우디아라비아		칠레		아랍에미리트		러시아		인도	
1분기	12		11		6		4		2	

【 표4 중국 무역기술장벽 통보 추이 (단위: 건) 】

연도	2024년	2023년	2022년	2021년	2020년
1분기	64	6	14	50	18

【 표5 산업별 무역기술장벽 통보 비중 】

